

광州日報 창사 60주년 기획시리즈  
생명산업 농업을 다시 본다 <37>  
since 1952

<6부> 수산업, 지금이 기회다

③ 천일염

# 남도 자연이 빚은 소금·어부 땀배인 염전 자체로 '보물'



천일염은 바닷물(해수)을 햇빛과 바람으로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다. 호주·멕시코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바닷물을 거대 염전에 가둬 두고 태양광과 바람으로 자연 증발시켜 1년에 한 두번 소금을 얻는다. 이렇게 생산한 천일염은 염도가 98~99%로 높고 미네랄 성분이 거의 없다. 전세계 소금 생산량(2억1000만)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프랑스·중국·포르투갈·베트남 등지에서는 갯벌을 개조한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해 '갯벌 천일염'으로 구분한다. 갯벌 천일염은 바다는 물론 갯벌의 식물성 플랑크톤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스며들어 미네랄 함량이

염 시장 규모는 지난해 1935억원으로 매년 500억원 가까이 성장하고 있다. 이중 전남산은 86%인 1657억원이고 전남산 가운데 가공식품을 통한 매출은 17.9%인 298억원이다. 원염보다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시장이 급성장한 직접적인 원인은 45년간 '광물'로 취급받던 천일염이 2008년 3월부터 법적으로 '식품'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대기업들이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군에 잇따라 진출했다.

CJ제일제당은 300여개의 염전이 있는 신의도에 2010년 10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일염 생

단일염전으로는 국내 최대인 신안 태평염전의 손일선 사장은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받았고 영광 영백염전의 민동성 사장과 오주섭 이사는 은행 간부 출신이다. 신안 성장염전의 박성창 사장은 30년간 교편을 잡았다. 만화 '식객'에 등장한 성장염전의 소금창고에는 소금이 모두 공중에 매달려 있다. 바닷물을 빼고 공기중에서 숙성시키기 위한 것인데 소금 양은 줄지만 훨씬 비싸게 팔린다.

전남 천일염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관광지로도 훌륭한 자산이다. 태평염전은 그 자체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연간 10만명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다. 이곳에선 갯벌길 걷기, 소금 만들기, 염전참고 및 습지 견학은 물론 소금 박물관과 천일염으로 만든 인공 동굴, 천일염 레스토랑을 둘러볼 수 있다.

### 전국 생산량 86%가 전남산...영양 풍부해 '경쟁력' 年 1657억 매출...영세성·친환경 시설 전환은 과제

### 태평염전, 근대문화유산 지정돼 매년 10만명 찾아

풍부하고 염도가 80%로 낮으며 풍미가 뛰어나다.

갯벌 천일염은 전세계 소금 생산량의 0.2%에 불과한 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다. 이 가운데 80%가량이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생산되고 국내 생산량의 86%가 전남산이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36만8703t의 갯벌 천일염이 생산됐는데 이 중 31만5654t이 전남에서 났다. 단일 시군으로는 신안이 전남 생산량의 75%, 전국 생산량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천일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남산 천일염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천일

산공장을 준공했다. 주민들과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해 '오천년의 신비'라는 브랜드로 지난해 39억7100만원의 매출을 올려 1년만에 매출액을 233%나 늘렸다.

청정원도 도초도에 연간 1만5000t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신안섬 보배'라는 브랜드로 지난해 67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여기에 전문경영인들이 천일염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 및 경영에 나선것도 성장의 기폭제가 됐다. 유명 게임 개발자인 김진호씨는 국내 최초로 신의도에 토관염 염전 부지와 공장을 설립해 소금업계 최초로 한국표준협회의 로하스 인증을 받았다.

그렇다고 전남 천일염의 미래가 장밋빛만은 아니다. 국내 염전의 평균 면적도 3.4ha로 영세한데 전남은 평균 3.0ha에 불과해 영세성이 더욱 심하다. 또 전남도 등 지자체들이 염전 바다와 소금창고 지붕을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염전의 절반가량을 임대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자비를 들여 친환경 생산시설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생산·유통의 규모화 및 기업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표준 생산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기능성제품을 개발해 수출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영광 영백염전

## 3無 원칙 고수...대형 유통점 납품하고 美·日 수출도

(쇠뿔·부직포·비닐장판)

영광군 염산면에 있는 영백염전은 일명 '3무(無)' 염전으로 유명하다. 없는 것은 쇠뿔 뿔과 부직포, 비닐장판이다.

대다수 염전에서는 부직포로 염판을 나누는 독을 쌓고 염전 바닥은 비닐 장판을 사용하고 있다. 소금창고와 해수 슬레이트 지붕 등 염전 시설은 쇠뿔 뿔로 마감하고 있다.

하지만 영백염전은 부직포 대신 고급 송판을 사용하고 뿔 대신 녹이 슬지않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교체해 소금에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특히 불순물을 걸러내고 작업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비닐장판을 사용하던 관례를 과감히 깬다. 가로·세로 4.5cm의 옹기판을 일일이 염전 바닥에 붙였다. 흙 성분의 옹기를 염전 바닥에 압착해 숨을 쉬듯 갯벌과 소금을 이어주기

때문에 토관염처럼 미네랄은 받아 들이면서도 비닐장판의 장점인 청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3무는 영백염전을 국내 최고의 친환경 염전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했다. 영백염전은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 염전콘테스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영백염전이 있기까지는 창업주 김영관 회장의 사명감이 있었다. 김 회장은 1973년 20만평을 간척해 이 가운데 13만평을 염전으로 개발했다.

2007년부터는 사재 등 50억원을 들여 4년여에 걸친 대대적인 친환경조성 사업을 펼쳐 오늘날의 친환경 염전을 일궈냈다.

3무 이외에 해수료와 하수구를 아예 따로 만든 것이나 식품공정처리 세정·탈수·건조·선

별·포장 등 12단계에 걸쳐 각종 미세 부유물과 금속성분을 제거하는 것도 친환경 장치들이었다.

영백염전은 궁극적으로 원염보다 가공 천일염 유통을 지향하고 있다. 가공을 통해 원염보다 5배까지 부가가치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수출선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하나로마트와 현대백화점을 통해 15종의 가공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민동성 대표는 "지난 4년이 친환경 시설을 구축하는 해였다면 올해부터는 본격 마케팅이 시작되는 해로 친환경 천일염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갯벌에서 생산되는 전남 천일염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바탕으로 제품 판매는 물론 관광자원면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다. 신안군 중도의 태평염전(상)과 장흥 우드랜드 편백소금집의 소금체험방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보약, 홍삼은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성어 광송간도로 북고당 한약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